

복음 Matthew 12:3-9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
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
는 흙이 니하므
나오나 으므로 말
는 가사 라서 가
그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흑 백배, 흑 육십배
개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mer went out to sow his seed. As we was scatterin
some fell along the path, and the birds came and ate
fell on rocky places, where it did not have much s
g up quickly, because the soil was shallow. But whe
ame up, the plants were scorched, and they witi

No. 3
2010

MUSIC

Collections from 12th Korean Worship & Music Conference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www.webkam.org/journal



*Journal of Korean American
Ministries & Theology*

Number 3
2010

MUSIC

Editor and Publisher

Paul Junggap Huh, Ph. D.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Decatur, Georgia

Assistant Editor

Sunggu Yang
Nashville, Tennessee

Editorial Associate

Daniel Adams
St. Johns, Florida

For any questions, subscription, and
articles please contact:

Tel. 404-687-4538

E-mail: huhp@ctsnet.edu

Copyright©2010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journal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Korean American Ministries
at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Korean American Ministries

701 S. Columbia Dr.

P.O. Box 520

Decatur, Georgia 30031

www.webkam.org

교회력과 기독교 교육 (The Lectionary and Christian Education)

한희자 Rev. Heeja Han

Director of Cross Cultural Ministry at Beulah Presbyterian Church, Louisville, KY
Ed.D. (Educational Leadership & Administration) at Spalding University,
Louisville, KY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태양력은 1년을 365일 또는 366일로 하는 그레고리력이며, 교회는 교회력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레고리력이 1월 1일로 한해를 시작한다면, 교회력은 성탄절 4주간 예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한해를 시작한다. 교회력은 기독교 교과마다 차이는 있으나, 기독교의 중요 절기인 부활절과 성탄절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력을 지키는 교회에서는 교회력 절기에 따른 예복색과 교회력 절기에 따라 성경말씀을 배치한 “성서정과(Lectionary)”를 사용한다.

예로부터 한국인들은 태양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시간과 달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시간, 둘 모두를 병행하며 사용하여 왔다. 기독교인의 대표적인 절기 중 하나인 부활절은 3월 4월 또는 5월 경 등 불규칙하게 있으며, 그레고리력에 정확하게 맞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유는 부활절의 날짜가 히브리력의 유월절이후 첫 안식일에 부활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인데,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 춘분(태양력)후 만월(태음력)이 지난 주일을 부활절로 지정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하여 태양음력을 사용하는 한국인들에게 있어 이렇게 부활을 계산하여 스스로 알아가는 방법은 쉬우며, 또한 이 절기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절기로서 잘 지켜지고 있다. 예배 뿐 아니라 교회학교 행사, 어린이/청소년 교육 등에 있어 부활절과 성탄절은 단연코 그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인들에게 교회력은 부활절과 성탄절을 제외하고 다른 절기는 익숙치 않다. 사회에서 지키는 절기에 맞추어 생활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사회가 정한 휴일이나 절기는 쉽게 생활화되어 가고 있으며 교회에서조차도 그 휴일과 절기를 따르는 경향을 쉽게 본다. 예를 들어 어머니 날이나 아버지 날, 노동자의 날이나 독립기념일 등에는 한인 교회에서 어버이날, 수련회, 야외예배 등 행사로 바쁘게 지내며, 심지어 추수감사절을 교회의 절기로 여기며 성탄절과 부활절 다음으로 큰 교회의 절기 행사의 날이 되었다.

교회학교에서는 기독교교육 전문 담당 교역자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은 교회들이 매주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치르기에 바쁘며, 2-3 년이 지나고 나면 진이 빠져서 교회학교에서 서서히 발을 빼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교회교육은 언제나 바닥에서 시작하고 새로운 교사들에 의해서 매해 시행착오를 거듭하기도 한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재미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바로 알아 그의 참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는 기독교교육의 산실이 되기 위해서 교회의 절기에 따라 교회학교 프로그램을 계획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을 교회의 생활에서 배우며, 교회학교에서 그의 삶을 따라가는 여정을 매해 함께 걸어가게 된다. 또한 주어진 교회력에 따라 미리 계획을 세우며 타부서 또는 당회와의 도움을 통해 교회 신앙공동체로서 참여하는 기독교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이월샵에 참여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기초한 교회력을 배우며, 각 교회들이 하는 행사들을 점검하고, 각 부서들이 함께 교회력에 따른 교회학교 교육 및 행사를 철저히 계획함으로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사 스스로도 양육받고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것이다.